

고계쓰인 절: 마쓰다이라 가문 묘소

고계쓰인 절(高月院)은 마쓰다이라 가문의 보리사로 일족의 사망자들의 장례를 치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초대 당주인 마쓰다이라 지카우지(1394년 사망 추정) 시대부터 도쿠가와 막부가 붕괴할 때(1867년)까지 많은 비호와 원조를 받았습니다.

마쓰다이라 가문 묘소는 고계쓰인 절의 역대 주지스님의 묘를 지나 경내 안쪽에 있는 나지막한 언덕의 노대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3개의 묘비는 지카우지(중앙), 그의 후계자인 야스치카(오른쪽), 그리고 5대 당주인 나가치카의 모친(왼쪽)입니다. 이것 모두 유골이 모셔져 있는 묘가 아니라 공양탑으로 추정됩니다.

마쓰다이라 가문이 3대 당주 노부미쓰(1404~1488) 시대에 영지를 확장시키면서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고계쓰인 절에서 장례식이 치러진 것은 초대 당주와 2대 당주뿐이었습니다. 나가치카 모친의 묘는 아들 중 한 명이 고계쓰인 절의 주지스님이 된 후 이곳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